큰스님 수행한담

배우고 또 배우세요”

◇봉원사에서는 매년 단오날 영산재가 장엄하게 봉행된다. 영산재를 주관하고 있는 송암스님(오른쪽에서 세번째).

“무릎 아프도록 절한다고 공덕이 생기는 것 아닙니다 한번 하더라도 지극하게”

진학을 해 졸업했어요. 잠시 직장에 다녔는데 불현듯 이 생활이 아니다 싶어 아버지이신 운허스님을 은사로 출가를 했어요. 그런데 당시 범패의 최고 어장으로 꼽히는 월하스님의 시봉을 들면서 어깨너머로 범패를 배우다 본격적으로 익히게 되었습니다. 원래 어떤 소리든 한번만 들으면 좀체 잊어버리지 않고 또 자주 듣다보니 몇곡 정도는 나도 모르게 그냥 할 수 있게 되었어요. 월하스님께 자꾸 가르쳐 달라고 하며 열심히 연습하니 남들이 10년 걸리는 것을 2년만에 다 배울 수가 있었어요. 월하스님도 아마 내 목소리가 타고난 미성(美聲)이고 음악성이 뛰어나다고 인정하셨던지 나를 몹시 귀여워해 주시고 잘 가르쳐 주셨지. 젊었을 때는 하루 왼 종일, 가나 오나, 화장실에 가서 앉아 있으나 걸어갈 때나 ‘으아’ 거리며 오로지 범패 한 생각만 했어요. 전차안에서도 연습을 하니 차안에 있던 사람들이 미친 사람으로 여겨 흘끔거리곤 했지요.

원래 봉원사가 전에는 범패가 흉년이었어요. 그때 주지가 이보담스님인데 이분이 봉원사의 중흥에 큰 역할을 하셨어요. 월하스님과 보담스님 두 분이 같이 봉원사대중들이 안 배우면 안될 정도로 종아릴 치면서까지 강제로 가르쳤지요. 그분들 덕분에 이만큼 불교의식이 이어지고 봉원사가 범패의 본산이 됐으니 어려운 가운데서도 불교전통의식을 뿌리내리고자 한 선사스님들의 업적을 잊으면 안됩니다.

범패는 오로지 일념으로 배워야 합니다. 계속해서 연습에 연습을 해야하는데 금방 싫증을 내거나 인내심이 없는 사람은 아예 배울 생각을 안 하는 것이 좋습니다.

‘나’ 내세우면 그 어떤 노력도 헛되기 십상

착한 일 했나 베풀며 살았나 반성하세요

수행자는 평생 공부하는 사람입니다. 공부배울 때의 처음 마음가짐을 끝까지 일관되게 가지는 것이 중요하지요. 처음 머리깎을 때의 초발심을 어떻게 견지하느냐에 따라 결과도 크게 달라지겠지요.

요즘같이 험난하고 갈등이 많은 시대일수록 우리 불자들부터 정의로 살고 바르게 살아 남의 모범이 되어야 합니다. 마음을 잘 쓰는 도리를 알아 신(信) 해(解) 행(行) 증(證)으로 부처님말씀을 실천하도록 항상 닦고 자기를 돌아봐야 합니다. 절을 하더라도 건성으로 숫자만 채울 것이 아니라 마음을 하나로 모으고 한번을 하더라도 진실되고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몸은 절을 하면서도 오늘 계에 가야 하는데, 오늘 내 자식이 시험에서 1등 해야 할 텐데 하는 잡념이 들어간다거나 누구를 미워하고 시샘하는 감정이 남아있다거나 하면 다 소용이 없지요. 일심정례라. 무릎이 아프도록 절만 한다고 공덕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한번을 하더라도 바르게 하고 지심으로 간절한 원력을 담아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벌써 한해도 다 가고 있습니다. 불자라면 자신이 하나라도 행한 선행은 있는지, 자신의 분수와 역량안에서 얼마든지 실천할 수 있었는데도 외면하고 있었던 착한 일들은 없었나 반성해 보아야 합니다. 또 선행을 하면서 자신이 했다는 생색을 내기 위해서 한 일은 아니었는지, 마지못해 한 것은 아니었는지, 대가를 바라고 한 일은 아니었는지, 더 베풀 수 있었는데도 인색했던 것은 아니었는지 반성해 보는 시간을 갖는 것도 좋을 것입니다. 설혹 부족되거나 잘못된 점은 부처님전에 참회하고 내년에는 더욱 선행을 쌓고 정진하는 자세를 새롭게 가졌으면 합니다.

내가 범패 가르칠 때 늘 강조하는 것이 있어요. 겉으로만 으 아 할 게 아니라 그 내용을 알고 지극정성으로 하라고 합니다. 신도들도 그렇습니다. 세속에서는 아무리 높고 귀한 이라도 절에 와서는 겸손한 마음으로 마음을 비우고 일상생활에서 부처님가르침을 실천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아상을 절에 와서도 그대로 드러내는 이들이 있습니다. 쉬운 예로 불전에 누가 금방 새 촛불을 켜 놓았는데도 어떤 이들은 그것을 꺼버리고 자기가 가져온 초로 바꾸는 모습을 종종 봅니다. 또 향을 하나만 꽂아도 되는데 듬뿍 꽂는 이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한창 절하고 있는 사람들을 헤치고 맨 앞에 가서 절을 해야만 영험이 있다고 생각하는 불자들도 있는데 고치도록 해야 합니다. 부처님을 뵈러 올 때만이라도 아상 중생상을 버리도록 해 보세요. 그 노력이 평소 생활에도 이어진다면 그대로 실천이 될 수 있습니다.

요즘 범패 배우려는 사람들이 많아져 무척 반갑습니다. 통영 제주도 광주 대구 등 전국에서 배우러 오고 있어요. 내가 몸이 아플때도 먼데서까지 배울려고 오는 정성을 생각하면 빠질 수가 없어요. 요즘도 금요일 오후 3시부터 2시간동안 영산재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짓소리와 안채비도 가르칩니다. 본래 영산재의 짓소리는 74가지나 됩니다. 중간에 거의 소멸하여 현재 13가지만 전수되다가 최근 내가 2가지를 더 찾았습니다. 짓소리는 가장 대표적인 범패소리라 할 수 있는데 배우기가 몹시 어렵지요. 마치 범종의 길게 울려퍼지는 신비롭고 우람한 소리인양 삼천대천세계로 끝없이 뻗어나가는 여래의 설법 같다고나 할까요. 그 여유와 환희와 묘음은 듣는 이의 심금을 울려 저절로 성불에의 의지를 북돋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내 여생을 오로지 범패 가르치는 일에만 전념하고 싶어요. 신명이 다하는 날까지 가르치고 닦는 일만 남았어요. 하나라도 더 가르쳐야 지요. 완전히 다 뗐다는 사람이 불과 몇명이 안돼요. 배우러 들어오는 것만도 너무 고마워 가르치는 것이 신이 납니다.

요즘은 스님들뿐 아니라 재가불자들도 바라춤 나비춤에 관심을 갖고 배우고 있어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범음범패를 배워야 바라춤 추는 것이 제대로 되지요. 그것을 모르고 박자만 맞춰 춘다면 신명이 안 나오고 제대로 표현이 안 나옵니다.

범음 범패는 불교만의 의식 전수가 아니라 우리 민족의 고유전통을 이어가는 일이란 의식이 전 국민에게 확산되었으면 합니다. 범패 전수에는 나라 뿐만 아니라 종단의 적극적이고 제도적인 도움이 필수적입니다. 왜냐하면 현재 각 사찰에서 불려지는 간단한 염불이나 반야심경 독경소리조차도 통일이 안되어 있어요. 최소한 염불이나 반야심경 독경소리 정도는 통일이 돼야 합니다. 그러자면 또 정통 범패소리에 바탕을 두고 작업을 해야 할 것입니다. 포교를 위해서도 그렇고, 전통문화의 보존이라는 측면에서도 그렇고, 부처님 경배하는 분위기를 엄숙 장엄하게 하기 위해서라도 범패는 절 안팎에서뿐 아니라 온누리에 끊이지 않고 들려와야 합니다.

정리=이경숙 기자 (gslee@buddhapia.com)

나의 수행일기 〈下〉

성재도

〈부산불교교육원 원장〉

부처님의 가르침은 자신의 마음을 닦는 것이다. 세상의 일은 모두 우리들의 마음에서 비롯된다. 모두가 자신의 마음을 닦아서 세상의 이치를 바로 알아서 순리대로 살아간다면 세상은 지금보다 훨씬 밝아질 것이며, 삶은 행복으로 가득할 것이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사람들에게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해야 한다. 단지 불교신자를 기르기 위해서가 아니다. 세상의 이치를 깨달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이다. 특히 신심 돈독한 사람들만을 위한 불교가 아닌, 불교에 관심은 있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모르는 다수의 사람들에게 부처님의 가르침을 쉽게 만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나는 이런 마음으로 11년전에 부산불교교육원을 개원했다. 종교 조사를 할 때 ‘불교’라고는 적고 있지만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혀 모르는 사람들, 절도 할 줄 모르는 사람들, 절에는 다니지만 잘못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 일상생활 속에서 이치를 찾아내고 작은 깨달음을 얻을 수 있도록 하고 싶어서 였다.

교육원 개원하고 답사단체 만든 이유

불교 바로 알고 바로 배울 수 있도록

나는 교육원 개원에 앞서 참회와 원력의 기도부터 해야겠다고 생각했다. 20년 전부터 스승으로 모시던 김해 은하사 대성스님을 찾아갔다. 하룻밤을 꼬박 새며 1만 배 정진을 했다. 오직 중생의 깨우침을 위해, 그를 통한 나의 완성을 향해 원력을 다졌다. 내 마음에 항상 중생의 염원을 담고 싶어서였다.

절은 수행하는 곳이다. 지구상에 우리나라 스님만큼 철저하게 수행하는 스님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해 왔다. 때로 다툼도 있지만 그것은 극히 작은 한 모습일 뿐이다. 오랜 역사동안 절마다 스님들의 수행과 중생들의 염원의 기운이 스며들어 있는 것을 느꼈다. 그 기운을 세상 사람들에게도 느낄 수 있도록 하고 싶었다.

‘우리문화기행’ 답사단체를 만든 것은 그 이유이다. 절은 우리 눈에 보이는 외형적인 것이 전부가 아니다. 그 안에 담긴 마음이 오늘 우리들의 마음에까지 전해지고 있는 것이다. 그 마음을 전해주고 싶었다.

경전과 스님들의 법어가 세상 사람들에게는 너무 멀리 있는 다른 세상의 이야기로 느껴지는 것도 안타까운 일이다. 너무 어렵기도 하고 실천에 옮기기도 힘들다고 한다. 그래서 월간 〈날마다 좋은날〉이라는 호주머니에 들어가기에 알맞은 크기의 작은 월간지를 만들었다. 세상 사람들이 생활 속에서 흔히 쓰는 말이나 글로 불교의 가르침을 전한다면 더욱 가깝게 느껴질 것이며 받아들이기도 쉬울 것이다.

우리가 이 세상을 한번 와서 머물다가 돌아가는 시간은 백년도 채 안된다. 어떤 인연으로 이 세상에 왔으며, 무엇을 하러 왔는가. 밥 먹으러 온 것도, 좋은 옷 입으러 온 것도, 좋은 집에서 살고 싶어서 온 것도 아닐 것이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먹고 입고 사는 집에 너무 많은 시간과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내가 이 세상에 온 것은 누구에게 억지로 끌려온 것도 아니며, 떠밀려 온 것도 아닐 것이다. 분명 내 스스로 온 것이다. 이 땅에 인연이 되어 부모를 만나고 세상 사람들을 만난 것이다. 매일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만나 왔다. 그들은 모두 나와 인연이 있는 사람들이다. 좋은 인연도 있을 것이고 나쁜 인연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좋은 인연이든 나쁜 인연이든 모두 나와의 인연이며, 나의 삶에 속하는 인연들이다.

어떤 인연일지라도 나의 삶은 모두 좋은 인연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 세상은 결국 내가 살아가는 세상이며, 나의 즐거움도 세상 속에서 내가 만들어 가는 것이다. 세상을 나의 마음으로 모두 받아들일 수 있다면 나의 삶을 날마다 좋은 날로 만들 수 있을 것이다. ‘시비하지 마라’ 옳고 그름을 따지지 말라. 오직 세상을 받아들일 뿐이다. 이것이 나의 수행이라 할 수 있다.

깨침의 혁명화 간결화

「하나한」

어떻게 구름사이로 하늘 본 것을 깨침이라 할 수 있는가?
구름걷는 법과 하늘사는 법을 익혀야 진정한 깨침 아닌가?

기존심성, 영성, 의식개발 프로그램 종합판 아닌 결정판
기독인 중생, 불도인 해탈, 그외분 어의주 모두 함박웃음

5박 6일만에 존재의 꽃을!
花微笑와 悟道頌과 自然舞로 즐겁게!

1부 : 자아 감옥 벗고 지금여기 무한이기
2부 : 대상과 하나되어 모두가 전체이기
3부 : 현상 속 근원으로 삶을 안무하기
- 얼시구 拜上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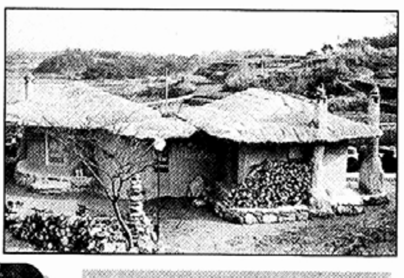
■일 시: 새해 1월부터 매 셋째주 월 15:00 ~ 토 11:00
('99,12월 셋째주 도움반 1/3액 실시)
■장 소: 경기도 여주군 북내면 천송리 517-1
전화 0337-885-1011/ 팩스 885-1022/ H.P 016-206-1001
■참가비: 99(求救)만원
(33만원선입금:나머지등록시 또는 매월 만원 회비 자동이체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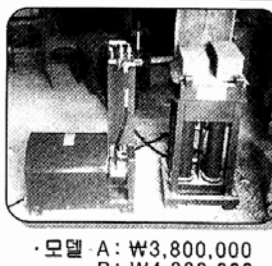
'99,12(8日,15日)19:00-22:00 정신세계원 (02)747-7033 질의응답실습(만원)

황토 흙벽돌 기계 실용신안 의장등록

건강, 장수주택 황토흙집에 희소식!!

황토를 물에
반죽 하지 않고
생흙을 벽돌로 찍어
바로 건축이 가능 한
흙 벽돌 기계를
생산 판매합니다.





·모델 A : ₩3,800,000
B : ₩4,300,000

▣ 황토 흙벽돌 기계장점
■생산량 1일 600~1,000장
■누구나 사용가능
■벽돌기본규격 : 30×14×14
■가정용 전기사용 및 엔진사용

▶ 온라인구좌 (우체국)
400077-0037300 봉송황토마을

황토관련 전문회사
황토마을에서는
◐ 황토 주택 토굴시공
◐ 토굴 현장 출장감독
◐ 황토흙집 동호인 모임운영

봉송황토마을
전북 남원시 운봉읍 장교리 929번지
전화 : 0671)634-0223
팩스 : 0671)34-1237

근본불교 여래선(위빠싸나) 수련법회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얻으신, 『위빠싸나』 참선으로
있는 그대로의 법(法) 성품(性品)을 경험하여
헐떡거리는 몸과 마음을 다스릴 수 있는 인연을 지녀지이다.
선재! 선재! 선재!

■ 기 간: 1999. 12. 15(수요일) 오후 4시 ~ 12. 24(금요일) 오후 3시(10일간)
■ 장 소: 봉인사 자광전 경기도 남양주시 진건면 송능리 304
(전화: 0346-574-5585, 574-2340 FAX: 574-0808)
■ 안 내: 케마 KHEMA (김경란)
■ 주 관: 봉인사 · 한길 정진원

▲2일 마다 수행과정의 내용 점검(Interview)
▲2일 마다 수행의 실제를 돕는 구체적인 법문
▲수행자 각 개인의 인연에 맞는 정확한 수행 방법의 안내
▲수행 기간 중 묵언
▲오후 12시 이후 불식(不食) (음료수는 가능함)
▲오전 4시 입선, 오후 9시 방선
▲수행자는 수련 기간 중 위빠싸나와 본 정진원에서 이끄는 방법 이외의 다른 수행을 할 수 없음

◇참가회비 1일(1박 기준) 당 10,000원
◇방사 관계로 30명 한, 마감 예정이오니 선착순 접수합니다.
◇참여 희망자 중 지병이 있으신 분은 반드시 별도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수행 기간(10일) 중 부분 참여도 가능합니다.
◆준비물 : 1. 법복(간편한 복장)
2. 세면도구
3. 필기 도구(특히 두툼한 노트)
4. 필히 담마(법)을 체험하겠다는 서원

보궁도 참배하시고 부처님 수행도 하십시오
봉인사 한길정진원 합장